

(사)행동하는 양심  
정진백 광주협의장



## “소통과 화합·평화…‘디제이즘’ 더 널리 알려야”

### ‘DJ서거 2주기’ 국제학술회의 성공적 마무리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2주기인 지난 18일, 정진백(57)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장은 그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사)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를 창립(7월15일)한 데 이어 지난 10일 ‘김대중 평화사상과 동북아 안정’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치러낸 정진백 회장으로부터 DJ서거 2주기를 보낸 단상을 들어봤다.

-먼저 광주일보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과 함께 ‘김대중 국제학술회의’를 치러낸 소감은.

▲최근 목포시가 삼화도에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을 착공하고 신안군이 하의도 생개에 노벨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DJ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자자체의 DJ기념사업을 알리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대중 평화사상과 동북아 안정’을 토론하는 국제학술회의

를 기획하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갈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화해와 연대를 통한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지경학(地經學)적 접근을 통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이라는 의미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 제안은 작금의 위태로운 동북아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김대중이즘’, 그 가운데서도 평화사상을 토론하는 회의장의 진지한 분위기에 행복하고 뿌듯했다.

-김대중 추모어워드를 발간하는 등 오랫동안 DJ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김대중 사상의 요체는 무엇인가.

▲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가다. 그분의 말씀이나 글을 대하면 매우 심오한 용어를 아주 손쉽게 풀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느껴진다. 상대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자질에 맞추어 자기 뜻을 표현하

는 탁월한 능력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거대한 담론도 살갑고 부드럽게 다가온다.

굳이 사상의 핵심을 말하자면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역사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오롯이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변증법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85회 생신 때 적어놓으신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어록은 진리이자 요체다.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의 한 언론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죽고나면 한국인들은 그때 가서야 그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켜켜이 쌓아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적 기반이 강고한 광주·전남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 전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 평화와 통

일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나가야 하나.

▲무엇보다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제대로 ‘학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보이고 스스로에게 부여될 뜻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우선 자기가 속한 곳에서,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그때그때의 사회현안과 생활에 연결하는 ‘김대중 스쿨’을 운영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다. 현재 우리 단체에서 월례모임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서클럽이 좋은 예다. 또한 오는 9월 광주 충장서립에서 김대중 대통령 애장 도서전을 개최하고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이희호 여사님과 조통달 선생 등 명인명장을 모시고 주제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김대중이즘’을 더 깊이 탐구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문화 행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집필중인 김대중 대통령 평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박종구 교수



한국폴리텍대학은 신임 이사장에 박종구 아주대 교수가 선임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오는 22일 취임식을 갖고 3년간 대학회를 이끌게 된다.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 정부 계획실 공공관리단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등을 역임했다.

### 김태형 道 공무원교육원 사무관 명퇴



김태형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관리담당(지방시설 사무관)이 정년 4년 빙을 넘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사무관은 “30년의 공직생활을 절반을 사무관으로 재직해왔다”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인사

#### ◆영암군

◇서기관 전보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사무관 전보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곽경구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사무관 승진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시설관리

담당 이영안 ▲환경보전과 해양수산담당 강삼봉

◇지도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담당

#### ◆신안군

◇서기관 ▲기획홍보실장 정희국 ▲종합민원실

장 순용 ▲공로연수 이영준

◇사무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광석 ▲행정자

원과 정영섭 ▲전문위원 박출홍 ▲지도읍장 황

광연 ▲비금면장 이종순 ▲흑산면장 김영구 ▲팔

금면장 김성강 ▲공로연수 김형주 ▲암태면장 직

무대리 이태근 ▲신의면장 이충만 ▲의회사무

과장 김희남

### 무등산 등반 엄홍길 “디자인비엔날레 성공하세요”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 엄홍길씨와 함께하는 ‘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 열원 시민등반대회’가 21일 무등산 옛길 2구간에서 열렸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시민 400여 명이 참여 했으며 무등산 관리사무소를 출발해 제철 유적지, 목교를 지나 서석대에 이르는 무등산 옛길노선 2구간 4.12km 코스를 등반,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염원했다.

또 이번 등반에는 힐랄리아 초오유 원정을 앞두고 있는 엘 손가락 없는 장애인 김홍빈씨



도 함께했다.

엄 홍보대사는 “무등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옷을 갈아입고 등산객을 맞아주기 때문에 고봉 등반에 앞서 이곳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간혹 한다”며 “세계적인 명산이 있는 곳에서 열리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도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인기자 bigkim@kwangju.co.kr

### 원더걸스 주연 美TV영화 제작



한류스타인 그룹 원더걸스를 주인공으로 한 미국 TV 영화가 제작·방영된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1일 원더걸스를 주인공으로 한 TV 영화 ‘원더걸스 엔 디 애플로’가 내년 1분기 미국 인기 TV 채널인 티니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원더걸스는 영화의 방영에 맞춰 미국 데뷔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 유지태-김효진 12월 결혼



유지태(35)와 김효진(27) 커플이 오는 12월 2일 결혼 한다.

김효진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1일 이같이 전하며 “아직 날짜만 정해졌을 뿐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미정이다”고 밝혔다.

유지태와 김효진은 2003년 함께 의류 광고를 촬영하며 처음 만났으며 2006년 말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난 5년간 공개적으로 교제해 왔다.

### 평생 뜻만나 그리운 잎과 꽃

#### <87> 상사화

상사화는 60cm 정도로 자라는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 서로 만나지 못하고 평생 그리워한다고 해서 ‘상사화’(相思花)라고 불리고, 중국에서는 비단과 맞바꿀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하여 ‘환금화’(換金花)라고 불리기도 했다.

상사화 뿐만 아니라 같은 살균력이 있어 잘 쟁어 앓은 한지에 그린 그림이나 글씨에 바르면 좀이 슬지 않고 색이 바래지 않아 수천 년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의 행파에 자주 사용됐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광주출신 김성진·박민규 바둑 프로기사 입단



아합동산에 전일본선수기오픈전에서 조치훈 9단을 물리치고 본선에 오르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었다.

김성진·박민규의 입단으로 (재)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모두 261 명(남자 214명, 여자 47명)으로 늘었다.

/김경인기자 kki@

입단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연구생 서열 2위인 박 초단은 황재연에게 14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입단을 결정지었다. 7세 때 바둑돌을 잡은 박 초단은 지난 2006년 이창호배와 조남칠국수배 어린이 최강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그로부터 연구생 활동을 하여 입단을 준비해왔다.

김성진·박민규의 입단으로 (재)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모두 261 명(남자 214명, 여자 47명)으로 늘었다.

/김경인기자 kki@

### 광주장애인체육회 체전 상위권 입상 결의



광주장애인체육회가 최근 프라도 호텔에서 이하은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가맹단체장과 체육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맹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입상을 결의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염장열(광주시교육청 총무과)·조점복씨 장남 해윤군 김유관·조강화씨 장녀 윤경양=27일(토) 낮 12시 광주시 동구 산수동성당.

▲이 혁(남광건설 명예회장)·김희진씨 장남 상준(대한항공 과장)·군박봉화·최종숙씨 장녀 허이양=27일(토) 오후 1시 광주시 무등파크호텔 5층 컨벤션홀.

▲문수원씨 장남 협식군 신원장(광주새마을회 사무처장)·이순화씨 장녀 주희양=27일(토) 오전 11시50분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시아나홀.

▲동창·동문회

▲광주상고 12회(회장 이재술) 동창 하기모임=28일(일) 낮 12시 30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신용회복위원회=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돋우기 위하여 체무조합

상담, 체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등을 지원.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금남로5가 금호종금빌딩6층·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

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대한한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 교육생=31일(수) 접수 마감, 영상 미디어교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모집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역 취업지원센

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 지원센터로 연결.

▲아이티리, 한국 가곡 및 어린이 성

악 클래스=2학기 광주교育대학교 평생교육원 음악클래스. 이태리·한국 가곡과 어린이 성악 클래스를 통해 노래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 접수는 26일(금)까지.

062-983-3211~2, 010-9007-2355.

▲㈔대한한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

### 謹 삼가 故人의 殤福을 빙니다弔

故 김남섭 님(남/86세)

子/子婦 :